

회 의 명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기 간	2023. 3. 13.(월) 14:00~16:00	장 소	센터 내 프로그램실
참 석 자	- 연수구가족센터 센터장 주영신		
	- 연수구가족센터 총괄팀장 김솔		
	- 연수구청 여성아동과 주무관 안광남		
	- 미추홀법률사무소 부소장 이도희		
	- 선학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박진하		
	- 하나키즈 어린이집 원장 이혜순		
	- 센터 이용자 대표(비다문화) 정세연		
	- 센터 이용자 대표(다문화) 도수지 (이상8명)		
작 성 자	김솔 총괄팀장		
회 의 내 용	1. 성원 보고 및 개회선언 연수구가족센터 운영위원 11명 중 총 8명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어 이도희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였다. 2. 운영위원 소개 - 김솔 총괄팀장이 참석한 운영위원 총 8명을 소개하다. 3. 1분기 주요 운영 현황 보고 - 김솔 총괄팀장이 서면자료 및 PPT자료를 통해 1분기 센터 주요 운영 현황 및 조직현황을 보고하다. • 위원 의견 - 이도희 위원장은 1분기에도 많은 사업을 진행하느라 수고 많았고 새로운 비전을 꿈꾸며 센터를 잘 이끌어 주기를 당부하다.		
	4. 1호 의안 2022년 결산 및 사업실적을 김솔 총괄팀장이 서면자료 및 PPT자료를 통해 보고하다. 이에 이혜순 위원의 동의와 도수지 위원의 재청으로 원안대로 가결되다. • 위원 의견 - 박진하 위원이 결산보고에 사업수입이 증가 했는데 세출 사업비가 감액한 이유를 질문하다. ▷이에 주영신 센터장은 인건비 중 방문교육사업이나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다문화 사업의 인건비가 지침에 의거해 사업비로 분류되는 사업이 있음을 부연설명하다. 방문교육지도사나 아이돌보미 활동비 등이 모두 사업비로 책정이 되었고, 지도사의 공석으로 인한 활동비 잔액 및 아이돌보미 12월 급여가 1월에 지급됨에 따라 12월 31일 기준 사업비 결산액이 줄어들었음을 보고하다. - 이도희 위원장이 만족도 점수에 대해 만족도가 몇 점인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참여자들의 호응도나 참여도 등이 더욱 중요하며, 서면 자료를 통해 프로그램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수고로움이 느껴져 센터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		

회 의 내 용

하다는 말과 함께 격려의 박수를 건네다.

▷ 주영신 센터장은 작년에는 비대면과 대면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는데 비대면을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대면을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설명하다. 2022년에는 점차 늘어나는 외국인 가정 자녀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문남초등학교와 연화중학교 등 학교의 요청이 있어서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다문화자녀 한국어교육을 진행하였다고 부연설명하다. 또한 어린이집과 함박 공동육아나눔터에서도 진행하여 한국어가 원활하지 않는 다문화, 외국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예산 부분이 충분하지 않아 회기가 짧게 진행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설명하다.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원하는 바리스타, 컴퓨터 교육, 검정고시, 운전면허 등 원하는 교육을 제공하였으나, 결혼이민자들이 원하는 욕구와 실질적으로 수요처에서 원하는 요구조건이 잘 맞지 않아 취업 성공까지는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하다. 2023년에는 결혼이민자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외부지원사업으로 동행복지재단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여 네일아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며, 사업 대상은 자격증 시험을 응시하려면 한국어가 전혀 안되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어서 한국어 가능자와 취업 의지가 있는 참여자들을 선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가족축제는 작년에 운동회로 진행했는데 개별로 부스를 운영하는 축제보다 운동회로서로 땀흘리며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적인 부분으로 2023년에도 운동회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작년에 진행하다 보니 햇볕과 우천 걱정으로 인한 부분을 최소화하고자 실내 체육관을 섭외 중에 있으며, 선학체육관 섭외가 어려운데 지자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질의하다. 실내에서 진행 할 경우 개인 장기자랑, 가족 장기자랑 등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부연설명하다. 또한 좋은 장소가 있으면 위원들에게 추천을 요청하다.

공동육아나눔터는 평일에만 운영했었으나, 맞벌이 부부를 위해 2월부터 한 달에 1회 토요일 오픈을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설명하다.

5. 2호 의안 2023년 사업계획 및 신규사업을 김슬 총괄팀장이 서면자료 및 PPT 자료를 통해 보고하다. 이에 정세연 위원의 동의와 안광남 위원의 재청으로 원안대로 가결되다.

- 주영신 센터장은 현재 다문화가족사회포용안전망사업 담당자를 채용중에 있으며 이 자리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이 필요한 조건이라고 설명하다. 2022년 12월부터 채용 중에 있으나 계속해서 채용이 되지 않아 채용조건 완화를 지자체에 논의하고자 센터에서는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의견을 냈으나 아이들의 심리 정서에 대한 부분이라 심리상담사 자격을 갖춘 자격과 청소년 기관에서 2년의 실무경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아 현재 채용공고 중이라고 하다. 그러나 이 완화조건도 자격조건을 맞추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며, 타 가족센터도 전체적으로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추가 설명하다.

- 박진하 위원이 직원들의 급여 체계는 어떠한지 질문하다.

▷ 이에 주영신 센터장은 사실 1명을 채용했으나 인수인계를 받는 중에 본인이 행정의 부담감을 느끼고 그만두고 나갔음을 설명하다. 가족센터는 각종 시스템이 많아서 행정업무가 어렵고, 언어발달지도사도 다른 병원이나 치료센터에서 근무하면 처우가 더 높아 사회복지 기관에서 근무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다.

- 박진하 위원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하다.

▷ 이에 주영신 센터장은 아프간에서 온 특별기여자들은 난민이 아니라 국가에서 특별기여자로 정했으며, 인천에 거주하시는 가정이 20가정이고 그중 13가정이 연수구에 거주 중이라고 설명하다. 2022년에는 인천 GM대우 직원들 중에 영어가 가능한 직원을 자원봉사자로 뽑아서 멘토 역할을 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의 문화는 가부장적인 사회라 모든 부분을 아버지(남편)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학교, 유치원 등에 가고 어머니들은 대부분 집에만 있다고 설명하다.

인천GM대우에서는 집에 있는 어머니들을 이끌어서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요청하였고 센터에서는 다문화사례관리 쪽에서 사례로 등록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소통의 어려움은 많지만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보고자 한다고 추가 설명하다.

- 이도희 위원장은 교육사업 우선 보다는 문화정서를 공감할 수 있는 한국민속촌 나들이 등 단체로 문화적인 경험을 먼저 해보는 것은 어떤지 추천하다.

▷ 주영신센터장은 가족나들이를 계획서에 넣었는데 GM대우에서 단체로 나가는 것보다는 가족별로 나들이를 지원하는 것을 원한다고 답변하다.

또한 송도초등학교에 자녀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서 송도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자녀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며, 자녀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에 어머니들은 같이 다른 형태의 자조모임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해보고자 한다고 말하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지금 이중언어 강사 양성과정도 진행 예정 중에 있는데 문남초등학교 같은 경우 한 반에 50-60%가 러시아어만 쓰는 아이들이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하다. 이에 2023년에 센터에서 러시아어 통번역사 양성과정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추가설명하다.

- 안광남 위원은 이중언어 강사 양성과정 프로그램이 모집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대상자 수요가 있는지 질의하다.

▷ 주영신 센터장은 이중언어 되는 분들이 많지 않고 어렵다고 본다고 답변하다. 센터에서도 고민하고 있으며 이중언어 되는 분들을 러시아어 통번역사 직원을 통해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모집하고자 한다고 답변하다.

- 이도희 위원장은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러시아 변호사 자원이 있으며 협력해서 자문, 교육 등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다.

▷ 주영신 센터장이 올해는 러시아인 대상 뿐 아니라 결혼이민자나 선주민 등 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하여 진행하겠다고 답변하다.

또한 정세연 위원에게 다문화이해하기 동반체험으로 결혼이민자와 선주민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도움을 요청하다. 결혼이민자들은 한국 엄마들하고 친구 관계를 맺어 교육, 양육 등 다양한 분야에 정보를 얻고 싶은 욕구가 크다고 설명하며, 2023년에는 미취학과 초등 저학년 자녀 2그룹을 운영해보고자 한다고 추가설명하다.

- 정세연위원은 본인도 센터의 다문화이해하기 동반체험 프로그램에서 만난 필리핀 결혼이민자와 아직도 연락하며 지낸다고 답변하다. 아이 초등학교 때 만나서 지금 고등학생이 되었으며, 다문화이해하기동반체험 프로그램에서 끝내는 것이 아닌 품앗이나 후속모임 연계를 통해 지지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좋다고 추가 조언하다.

- 또한 서로 잘하는 것으로 재능기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만나게 되면 흐지부지 될 수 있으니 단순한 이유라도 만들어서 모임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본인의 경우에는 필리핀 엄마와 영어와 역사를 서로 자녀들에게 알려줬으며 이를 통해 약속을 했으니 어떻게든 만나게 되었다고 말한다.

- 도수지 위원은 베트남 사람끼리도 그런 팀이 있고 가능한 사람들끼리 한달에 1~2회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다고 말한다. 다만 선주민은 없고 결혼이민자들끼리 결집된 모임이며 그 안에서 한국에 오래 거주한 사람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고 말한다.

- 주영신 센터장은 센터에 제일 많은 회원의 국적은 중국이며, 그 다음이 베트남이라고 말한다. 중국 국적의 회원이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참여하다 보니 나라별로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나라마다 특수성이 있어서 고려가 되어야한다고 말한다.

6. 3호 의안 2023년 1차 추경예산(안)을 김술 총괄팀장이 서면자료 및 PPT자료를 통해 보고하다. 이에 박진하 위원의 동의와 정세연 위원의 재청으로 원안대로 가결되다.

- 박진하 위원이 신규사업이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선택이 가능한 것인지 질문하다.

▷ 주영신 센터장은 사회포용안전망 사업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부분이 커지고 있고 필요성이 증가하다고 판단되어 선택을 하였고, 1인가구 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진행하고자 선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다. 1인 가구가 늘고 있어서 필요성은 느끼나 인천시 사업은 신청 하지 않고 연수구청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다. 센터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만 신청해서 받으려고 한다고 답변하다.

- 박진하 위원이 통번역사나 심리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급여체계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 부분이 있는지 질의하다.

▷ 주영신 센터장은 통번역사나 이중언어코치 등은 별도로 급여 테이블이 없어서 10년을 일한 담당자나 3년~4년을 일한 담당자가 급여가 동일하다고 답변하다. 인천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처우개선에 힘쓰고 있으나 여성가족부에서 호봉테이블이 없기에 어려움이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사회복지사와 결혼이민자 종사자는 자격이 다르기에 같은 테이블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직능별로 테이블을 요청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다.

7. 기타 안건 논의

- 박진하 위원이 센터에서 회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 질의하다.

▷ 주영신 센터장은 회원은 1,500명 정도 되는데 이 인원은 다문화, 외국인 대상의 회원 수이며, 기관 특성상이 보편복지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보니 그 외 일반가정은 회원제가 아니다. 회원제가 아닌 일반가정 까지 모두 포함하면 더 많은 인원을 포용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 안광남 위원이 고려인도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질의하다.

▷ 주영신 센터장은 외국국적동포사회통합지원사업으로 현재 함박공동육아나눔터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가족이라는 범주가 크다 보니 사업의 범주가 굉장히 포괄적이며,이에 코로나 19 완화로 인해 공간이 걱정된다고 추가 설명하다. 2023년에는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여, 신규 대상자 발굴 및 센터 인지도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하다.

▷ 이에 박진하 위원이 장소에 대한 고민으로 선학복지관에서는 현재 함박복지관, 옥련동 주민센터 등을 쓰고 있으며, 주 대상자들이 있는 장소로 찾아가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선학동에서는 선학복지관도 사용 할 수 있다고 답변하다.

▷ 안광남 위원이 행정복지센터 공간이용에 대해 협의하고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다.

▷ 주영신센터장은 현재 송도3동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는 송도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이 너무 협소하나 송도3동 행정복지센터와 프로그램실 논의가 사실상 어렵다고 답변하다. 송도나눔터는 프로그램 진행 시 놀이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보니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공간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8. 폐회

이상과 같이 논의하고 이도희 위원장이 마무리 인사를 하고 연수구가족센터 1차 운영위원회 폐회를 선언하다.